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통전적 성장

합성교회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최정규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5월

Copyright © 2022 Jungkyu Choi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Holistic Development of the Congregation through Tong Sermon

: A Case Study of Habseong Church, Masan, Korea

Jungkyu Choi

Habseong Methodist Church, Masan, Korea

It is God's law that all living things grow. It is also God's will that faith changes a nd grows. Preaching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eligious growth of the congregation. Do zens of sermons a day are being broadcasted or spread to individuals through various med ia. However, the current reality is that the faith of the congregation living in the flood of s ermons is not growing in proportion to it.

The reason sermons are important for the growth of the congregation's faith is th at the word of God is accurately proclaimed through sermons. This study aims to study an d present the effect of Tong sermon for the holistic faith growth of congregations.

For the study,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was adopted that comprehensively anal yzes and organizes literature related to Tong sermon and contents of the Bible, an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applied to the Habseong church' Sunday worship service that I preac hed for 52 week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ong sermon on the holistic growth of faith in the congregation, written and in-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abseong church members to originate the results, and the impact of Tong sermon on holistic faith growth in the congregation was summari zed.

As a result, visible changes began to appear in the lives of the church members. T hrough Bible readings and daily prayer meetings, the congregations themselves were mak ing efforts to grow their faith, and more participation and dedication to missionary work, relief and evangelism began to happen more than they used to.

Seeing that the religious growth of the congregation is fully reflected in the life of the congregation through the conviction of faith toward God within, as well as the deter mination of God's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right word, I have known and realized that Tong sermon is affecting the religious growth of the congregation.

국문초록

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통전적 성장

합성교회 사례연구

최정규

마산합성교회, 경상남도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신앙 역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설교는 회중의 신앙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가 방송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에게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회중의 신앙은 그와 비례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회중의 신앙 성장에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전적인 신앙 성장에 통설교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통설교를 회중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설교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과 성경 내용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문헌연구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자가 사역하는 합성교회 주일예배에 통설교 방식을 적용해 52주

동안 회중에게 설교했다.

또한 통설교가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합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해 내고, 통설교가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경통독과 매일 기도회를 통해 회중 스스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선교와 구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전보다 더 많이 동참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바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결단이 회중의 삶에 통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통설교가 회중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 차

감사의 글 vii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방법 3

연구 범위와 제한성 4

제 Ⅱ 장 통설교의 이해 5

통성경과 통설교 5

통설교의 성경적 이해 15

통설교의 신학적 이해 22

통설교의 목회적 이해 24

제 Ⅲ 장 통설교와 통전적 성장 30

통설교를 통한 내적 변화 33

통설교를 통한 외적 변화 37

통설교를 통한 통전적 변화. 41

제 Ⅳ 장 통설교 실행: 합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43

합성교회의 상황 43

통설교의 실행절차 44

통설교를 통한 가시적 변화 50
제 V 장 통설교의 평가: 합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67
인터뷰의 목적 67
인터뷰의 대상 68
인터뷰의 결과 69
제 VI 장 결 론 77
요약 및 평가 77
결론과 제언 78
부록 82
참고문헌 109

표 목차

<표1> 통성경 40 이야기 줄기 44

<표2> 2021년 합성교회 1년 설교본문 48

<표3> 1년1독 통독성경, 1-3월 목차 52

<표4> 1년1독 통독성경, 4-6월 목차 54

<표5> 1년1독 통독성경, 7-9월 목차 56

<표6> 1년1독 통독성경, 10-12월 목차 58

<표7> 기도모임의 일정과 내용 62

<표8> 연도별 전도인원 변화 66

<표9> 신앙생활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0

<표10>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1

<표11> 설교가 신앙성장에 차지하는 비중? 72

<표12> 통설교와 기존설교 중 호감가는 설교는? 73

<표13> 통설교가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는가? 74

<표14> 통설교를 통한 신앙의 변화 75

<표15> 통설교에 대한 만족도 76

그림 목차

<그림1> 합성교회 성경통독 큐티 나눔 61

<그림2> 구제와 이웃사랑 64

감사의 글

성경한권이면 충분하다’ 는 말씀 앞에 가슴 뛰던 날들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배움의 길을 걸어 감에 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잘 이끌어 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주신 통(通)박사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조언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부끄럽지 않는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타지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국에 있는 학생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 타자를 치시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교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는 탁월한 안목과 넓은 성경의 이해는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 교수님의 열정적이며 탁월한 가르침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 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합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합성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늘 큰 울타리와 힘이 되어 주시는 구동태 감독님과 김평화 목사님 그리고 함께 밤을 지새우며 사역하는 박준목사 최민규목사 이정욱목사 이순희전도사 박온순전도사 정미숙전도사 홍순점전도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논문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 먼저 탁월하게 논문을 쓰고 박사 선배인 이정욱목사님의 매우 큰 도움이 있어 사역가운데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목회에 행정적 도움을 주시는 손미향권사님

박효정집사님 권재구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정순재 안승준 고경자 김광환 박청수 진일곤 손태영 박기윤 윤철희 신영호 김봉열 최동철 조병채 남상영 김태우 허정숙 임준택 최갑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2년을 한결같이 큰 아들을 돌보고 있는 아내 효정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선, 윤, 진, 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3월

최정규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 잘 자란다는 의미를 부모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이해한다.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균형이 깨지거나 조화되지 않는다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 자녀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자 보람이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는 한 교회의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다.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양육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점차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큰 기쁨이 된다. 그렇기에 목사는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풍성해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저마다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설교를 통한 영적 양식의 공급이다. 설교를 통해 다수의 성도가 영적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목사의 이런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지난주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과 지난주에 선포한 내용도 기억되지 못하는 설교가 과연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왜 목사들의 설교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설교는 성경의 이야기를 현대로 끌어와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반해야 함에도 많은 설교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설교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축복을 주제로 설교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 본문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다[1]. 많은 설교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어떠한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그리고 대부분 이 말씀을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로 둔갑시킨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이 말씀은 결코 축복을 의미하는 구절이 아니다. 이 말을 건네 사람은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이다. 빌닷이 고통받는 욥을 찾아와 위로하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던진 말이다.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이 아닌 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 성경의 일부에만 집중해 편협한 주제로 편협하게 설교하는 모습 등 이 모든 것이

---

[1]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현재 한국 교회가 당면한 설교의 문제이자 현실이다. 이러한 설교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

어떤 설교가 회중의 신앙과 삶에 바른 영향을 주는 설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통성경을 적용한 설교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설교가 성도들의 통전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도들의 통전적인 신앙 성장을 이끄는 통설교라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성경과 통설교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성경과 통설교에 관한 연구논문, 조병호의 『성경통독과 통신학』 및 이와 관련된 서적들, 논문 자료와 학술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성도들의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통전적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합성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통설교로 진행함으로써 회중의 통전적 성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더불어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회중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현장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3) 연구 범위와 제한성

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통전적 성장을 일률적으로 수치화해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통전적인 성장 여부를 획일화된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합성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삶의 유의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필자가 사역하는 합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인 만큼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일반화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설교를 통해 합성교회 회중의 신앙 성장과 삶의 변화라는 큰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사실이기에,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Ⅱ 장

통설교의 이해

1) 통성경과 통설교

설교는 회중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좋은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회중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좋은 설교의 기본은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중의 신앙 성장을 위한 통설교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통이란?

조병호는 "통(通)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각각 이해하고 이어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2]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

[2]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67.

대상이 지닌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하는 것”[3]이라고 말한다.

>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통달(通達), 관통(貫通)하도록 보는 것이다. 막힘 없이 훤히 알도록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해서 정통하게 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한번에 쥐어 잡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통(通)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도 쓸 수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이 대상을 꿰뚫어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통(通)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을 꿰뚫어 생각하는 것, 즉 대상을 꿰뚫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4]

“통(通)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常數)이며,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말한다.[5]

21세기에는 단편적이고 고도화된 지식보다 다양한 지식의 상호작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발견한 가장 창조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차이’와 ‘다름’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6] 이러한 상황에서 ‘통(通)’은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며,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통(通)’은 어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고체계를 넘어서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모든 요인을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보는 개념이자 방법이다.

---

[3] Ibid., 69.
[4]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9), 63.
[5] Ibid., 142.
[6] Ibid., 88.

② 통성경이란?

"통성경은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이야기로 보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 나가는 방법이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한 장에서 교훈을 얻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진다." [7] 따라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성경을 전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통성경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통' 의 방법에 따라 성경을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결과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바라보며 접근하는 방식이다.

통성경은 부분 중심적인 서구의 논리적 사고와 부분보다는 전체에 집중하는 동양의 사고를 조화롭게 구성한 성경 읽기 방식이다. 나무와 숲을 각각 별개의 개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 성경 전체와 부분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중심으로 통성경은 66권으로 나뉘어 있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해석하며, 그 속에 나타나는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묶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통성경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9.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8]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함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나타난다.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서구적 성경 해석 방식에 따라 장과 절에 집중해 제한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았다. 그렇게 되면 성경 이야기를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며, 전체적인 성경 내용과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병호는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으로 보는 방법에 관해 그의 저서 『성경통독과 통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8]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11.

바로 통(通)성경이다.[9]

다시 말해 성경을 조각조각 나누어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 속에 펼쳐지는 입체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게 된다. 입체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다.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시간, 공간 인간만을 통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10] 성경에 등장하는 5,000여 명의 인간들의 이야기는 결코 혼자서 단독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나라를 전체적으로 함께 통으로 바라보야 한다.

조병호는 구약의 모세의 사건을,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묶어서 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며 지켜본 모세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11]

---

[9]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19.
[10]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1.
[11]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20.

구약의 모세의 사건을 살펴보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는 갈대 상자에 탄 모세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으로 바라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탈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아픔과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는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이해하게 된다. 단순했던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가 한낱 개인의 스토리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적 상황 및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입체적인 이야기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만 개인, 가정,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해 개인 · 가정 · 나라의 통 개념을 살펴보자.

> 신약에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개인, 가정,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통으로 볼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12]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이유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탄생 시건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가정을 분리해 생각할

---

[12] Ibid., 21.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신약의 사건 역시 개인 · 가정 ·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장 나라 · 5대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대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13]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왜 바벨론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는지,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페르시아에서 귀환했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왜 이토록 수많은 명절이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성경통독과 통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13]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14]

성경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③ 설교란?

"설교는 하나님과 설교자와 회중이 다 함께 관련되는 하나의 살아 있는 과정(a living process)이다." [15] 더 나아가 "설교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본문을 현대인과 연관해 해석하라는 봉사의 요청하에 그 자신에게 맡겨진 위탁에 복종하는 교회에 의해 이 일로 부름받은 자에 의해 자유로운 언어로 행해진다." [16]

설교에 대해 캠벨 몰간은 "성경 본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그 발견된 메시지를 수천 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회중에게 적용하고 선포하는 일" [17]이라고 정의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란 전인을 다루는 것이고, 회중이 감복하게 되어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고 계시며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무엇인가가 그 설교를 듣는 자 안에서 일어나고 무엇인가가

---

[14]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2-23.
[15] 하던 W. 로빈슨,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6), 16.
[16] 칼 바르트, *칼바르트의 설교학* 정인교 역 (서울: 한들, 1999), 44.
[17] 캠벨 몰간, *몰간 신약 성경 연구* 김남준 역 (서울: 무림출판사, 1992), 13.

체험되며 그렇게 되어 설교가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라고 주장하였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정확성과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설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를 통한 복음 선포는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19] 따라서 설교는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존 브라더스는 설교를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며, 세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고 청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0]이라고 정의했다.

제이 다니엘 바우만은 "어떤 설교라도 행동(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1] 설교가 이 목적에 충실하다면 회중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한다. 결국 설교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적, 외적, 통전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④ 통설교란?

현재 수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보면 대부분 구절과 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 등 어느 한 가지 단편의

---

[18]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 사람,2010), 87.
[19] 아담 해밀턴, *말씀을 해방시켜라* 유성준 역 (서울: KMC, 2009), 7.
[20] 정성구,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3), 37.
[21] 제이 다니엘 바우만, *성공적인 설교자를 위한 길잡이*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8), 286.

이야기로 설교를 진행한다. “통설교는 통성경에 기반을 둔 설교라 할 수 있다. 통성경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통설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스토리로 들려주는 것에서 시작해 설교의 형태로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22]

레너드 스윗은 “오늘의 문화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닌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23]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성경에 담긴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레너드 스윗은 “‘내러티브(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성어인 ‘내러포(narrapho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처음으로 사용했다.” [24]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 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표현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설교가 통설교다. 이에 대해 김영래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 성경은 이야기와 은유로 만들어졌고, 이야기와 은유로 전달되었으며, 이야기와 은유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는 내러포이다. 따라서 성경 교수의 방법은 이야기와 은유를 이야기와 은유 자체로 읽고 듣는 내러포적 방법이 되어야 하며 단어와 개념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이야기를 주석해야 한다.[25]

---

[22] 남영숙, “군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 설교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1), 28.
[23]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156.
[24]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 세계* 84, (2015), 527
[25] Ibid., 527.

성경은 이야기로 전해져 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야기들이 문자로 기록되었다.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 감정에 대한 것들은 배제된 채 기록만 남게 되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청중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설교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고 설교하는 것이 통설교의 핵심이자 기본이다.

2) 통설교의 성경적 이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어떤 도덕적인 충고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주제를 시사하거나, 또는 삶의 원칙에 대해 종교적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내는 목소리의 한계를 넘어서 바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이다.” [26]

설교자는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 중간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의미와 진리가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가 오늘의 회중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고, 그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회중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현시대와 연결되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진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청중에게

---

[26] 토마스 G 롱, *설교자는 증인이다* 서병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34.

분명히 제시해주어야 한다”[27] 즉,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똑바로 받아, 그 메시지를 현시대에 사는 회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① 구약에 나타난 통설교

모세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통설교의 예를 모세의 설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에게 남긴 설교다.”[28]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설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29]에게 전하고자 한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며 사랑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설교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과 광야 생활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 홍해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등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40년 세월 가운데 어느 특정한 시간과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광야에서 보낸 40년 세월 전체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

[27]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카페북스, 2018), 35
[28]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85.
[29]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조병호 박사는 이 백성을 ‘만나 세대’라고 칭한다.

사랑을 상기시키며 말씀을 선포했다.

모세의 설교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 중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통한 설교,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통설교다.

에스겔의 설교

구약의 에스겔서 에서도 통설교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에스겔은 25세에 여호야긴왕과 남 유다 기술자 1만 명과 함께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들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생각과 조상들의 잘못으로 처벌받는다는 억울함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주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다. 그는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은 힘든 노역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뿐이었다. 에스겔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이 포로 생활을 통해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했다.

에스겔의 설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 특정한 한두 해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포로 생활 70년 전체를 통으로 설교하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드러냈다. 이렇듯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것이 통설교다.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

구약에 나타나는 통설교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도 볼 수 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펼치며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 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도 허락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의 훈련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4만 9,897명이 고국으로 귀환했는데, 이들은 오래전 불타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된다.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앗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하자 점점 사기와 의욕을 잃은 재건 세대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재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은 상태로 16년째 중단되자 학개와 스가랴는 주변 상황만 탓하며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위로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결국 백성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건축을 이어 나갔고, 마침내 성전을 완성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중심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신앙과 성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했고, 이는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통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

느헤미야의 설교

한편,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관여한 에스라의 설교에서도 통설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르칠 것을 다짐했다.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이 재건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가르쳤고, 백성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귀환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금식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켰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이끈 것이 바로 통설교였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으로 들려주었다. 이를 통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나가게 끔 이끄는 설교가 통설교다.

② 신약에 나타난 통설교

베드로의 설교

신약에 나타나는 통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낸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성 안의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성경부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낸 설교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설교했고, 그 설교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모인 5,000명이 회심하는 기적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사역까지 전체를 묶어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통설교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 이야기에서도 통설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사도들처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누구도 당해 내지 못할 만큼 그는 능력이 있었다.[30]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를 시기하고 괴롭혔으며,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다. 결국 공회에 체포된 스데반은 종교 전문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2,000년에 걸친 구약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서 설교했다.

스데반이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 내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양심에 찔렸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거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였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설교가 신약에 나타나는 통설교다.

---

[30]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행 6:8-10).**

바울의 설교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 역시 통설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바울은 신약성경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다. “바울의 설교 중심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 [31]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그리스도 자신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설교의 주제일 뿐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의 말씀의 목적이자 내용이었다. 바울의 많은 설교 중 오네시모라는 노예에게 한 설교에서 통설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서도 안 되는 존재였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생명의 가치보다는 소유의 가치로 인정되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였다. 노예의 삶을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는 스타르타쿠스의 난[32]과 세쿤두스의 난[33]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어떠한 연유로 도망을 치게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는다. 여하튼 오네시모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인집을 나와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도망쳤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

[31] 박윤선 *사도행전 주석* (서울: 영음사,1973), 293

[32]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했다. 주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 74명을 이끌고 도망가자 로마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 제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 규모가 10만 명까지 커지게 되었고, 3년여의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끄는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했다.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은 아피아 가도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

[33]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했다. 주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 74명을 이끌고 도망가자 로마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 제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 규모가 10만 명까지 커지게 되었고, 3년여의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끄는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했다.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은 아피아 가도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여전히 노예 신분인 것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바울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본인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에 서서 빌레몬에게 보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을 읽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금 받아들였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계와 상황을 뛰어넘어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전한 내용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단번에 전환시킬 만한 힘이 있는 설교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한 통설교의 모습이다.

3) 통설교의 신학적 이해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보다 본문이 되는 성경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성경을 주해하는 것은 설교 준비의 시작이다. 올바른 성경 주해로부터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설교의 신학적 이해는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하는 통신학에서 출발한다. 조병호는 『성경통독과 통신학』에서 통신학의 방법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성경의 기록들을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 다양한 관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입장에서 아우르는 것을 일컫는다. 성경을 조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통신학인 것이다.[34]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을 통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통신학은 경전 중심의 성경 읽기 방식과 심정 중심의 성경 읽기 방식이 통으로 가야 한다.” [35] 분석적이며 부분적인 서구 방식의 내용 중심 성경 해석과 전체적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는 동양의 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설교자에게 있어 성경을 더 폭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관점과 시각으로 인해 보기 힘들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통으로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

>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사건만을 강조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순종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다른 면모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운 명령에 대해서도 믿음의 지켰던 순종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인물인 동시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종들과 함께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사람이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배려와 겸손의 사람이었다. 모리아 산 사건만을 부분적으로 볼때에는 ‘믿음’ 이라는 관점에서 밖에 접근할 수 없지만 통성경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조망하게 될 때에는 ‘믿음’, ‘용기’, ‘배려’, ‘순종’ 등의 다양한 관점이 등장할 수 있다.[36]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통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각각의 사건에 나타나는

---

[34]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72
[35] Ibid., 73.
[36]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75-76.

여러 가지 면모를 총체적으로 수렴해 그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며, 통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은 통신학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이 통설교의 신학적 이해의 한 부분이다.

통설교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인물중심으로, 혹은 사건 중심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말씀의 체험이 가능하게 한다. "설교자가 직접 호소를 하지 않을지라도 회중은 저절로 어떤 인물이나 인물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분노와 관점과 해결책을 공유한다" [37]

4) 통설교의 목회적 이해

설교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목회 상황 속에서 특정한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한다. 설교의 최종 목표는 회중의 변화에 있다. 설교를 통해 변화된 회중이 은혜 받고 나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에 설교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역이다.

18세기 신학자이며 교육자였던 에밀 부르너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38]라고 말했다.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를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한다.

---

[37] H, J, Pieterse,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정창균 역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139
[38]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8), 1.

존 스토트는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한 면이 상실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종교이기 때문이다”[39]라고 말했다.

회중에게 설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설교는 분명한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설교는 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기에 대상이 없는 설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교에는 회중을 향한 기대와 목표가 상존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은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에도 회중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존재한다. 설교를 통해 회중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해야 한다. 통설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는 설교다.

회중은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길 원한다. 따라서 내 상황에 맞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한다. 통설교는 성경과 현재 상황을 각기 다른 현상으로 취급해 분리하지 않고, 성경이 해석될 당시의 상황과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하도록 진행된다.

“현대의 회중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때 거기서’ 그 기록이 무슨 의미를 담고 기록되었는가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40] 회중이 각 상황에 맞춰 설교를 듣는다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필요한 말씀만을 취사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통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

[39] **존 스토트, *현대교회와 설교* 장성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21**
[40]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91.**

이야기의 상황 속에서 각 인물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보여주며 회중에게 도전을 주고 결단하게 한다.

회중은 한 가지 부류가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극단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회중 내에서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뉘고,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영역에서 상존한다. 이런 양극단으로 나뉜 회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설교다.

> 한 극단에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극단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시는 대목만 눈에 띈다. 물론 하나님은 패역하고 악한 인생들을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제외시키면 오해가 생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깊은 이유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41]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양극단에 담긴 이야기는 통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통설교를 통해 양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음을 보여 주면 양극단으로 나뉜 회중에게도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또한 회중에게 설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전달이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를 통해 은혜받고 변화되는 회중은 없다. 따라서 설교를 준비했다면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아힘 에르트너와 홀거 에쉬만은 저서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에서 이야기 형식의 설교 방식을 제시한다.

---

[41] Ibid., 94

> 개념 중심의 추상적 연설 방식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잘 드러내기에 충분한 방식이 아니라는 신학적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며,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그분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사람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데 가장 잘 어울리는 언어 형식은 '이야기'이다.[42]

"통성경의 기본 전달구조는 이야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식 전달구조의 특징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전체적인 큰 줄기에서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알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43] 주제가 쉽게 전달되어 회중의 머리와 마음속에 남을 때, 이는 성도들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다. "회중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서 설교에 반응하기를 결정한다. 나아가 설교의 결론은 설교에 참여한 회중이 자신의 삶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내리는 것으로 설교가 끝나도록 한다"[44] 목회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결정하고 인도하며, 회중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는 방법이 바로 통설교다.

설교의 목적은 "산발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다"[45] 설교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회중의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적용이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경에 담긴 진리들이 신자들 개개인에게 적절하게 다가가 도록 하는

---

[42] 아힘 헤르트너, 호거 에쉬만,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손성현 역 (서울: KMC, 2014) 43.
[43] 이정욱, "청소년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0), 52.
[44] 웨인 브래들리 로빈슨, *이야기식 설교를 향한 여행*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52.
[45] 현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218.

것이다. 그런 설교를 들은 신자들은 그 진리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영향으로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46]. 그러므로 설교에서는 본문과 회중을 연결시켜 회중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변화와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적용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교에는 반드시 적용이 필요하다. 통설교는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이 회중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 "적용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설교는 시작된다." [47] 라는 칼바르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적용하며 회중의 삶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 칠 때, 거기서부터 설교는 시작된다.

제이 아담스는 설교의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전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강연일 따름이다. 강연은 성경에 대해 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성경으로부터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전한다[48]

---

[46] 제이 아담스, *어원으로 살펴본 적용의 의미*, 「그 말씀」1월호 (서울: 두란노, 1997) ,231.
[47] 제이 다니엘 바우만, *현대 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서울: 양서각, 1983), 344
[48] 제이 애덤스, *설교 연구* 박광철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82

제 Ⅲ 장

통설교와 통전적 성장

성장의 개념

모든 생명체는 성장한다. 이는 하나님의 법칙이다.[49] 성장은 변화이자 성숙이다. “인간의 성장과 성숙은 수정의 순간에서 죽음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와 발전이다. 변화는 외면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변화로 나누어진다. 외면적인 변화, 즉 외면적인 성장은 자연적 물리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거의 한계와 때가 있지만 내면적인 성장은 끝이 없다.” [50]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라고 발달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언제나 지향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늘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이자 응답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다. 따라서 신앙성장은 신앙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

[49]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 9:7).
[50] 이연길, 최훈진,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86-87.
[51] 루이스 벌콥, *조직신학 하*,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7), 75.

지는 것을 말한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52] 라고 말하면서 신앙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앙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고 행동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깃들여 있다”[53]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자라듯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육체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동일하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성도로 성숙해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적이다.”[54] 따라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가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연길은 그의 책에서 신앙 성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신앙성장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감으로써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더 깊어 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 가면 갈수록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성장이다.[55]

통전적 성장의 개념

‘통전적’ 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

[52] **에베소서 4장 13절**
[53] **리더 위트락, *영적 성숙*, 유영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39**
[54] **강하룡,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서울: 브니엘, 2019), 4.**
[55] **이연길, *소그룹 성경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기독교문사, 1991), 25**

양자택일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분법적 사고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하는 통전성을 가르키는 의미로 사용된다.”[56]

“통전적이란 말은 영어로 형용사 ‘holistic’인데, 이는 ‘whole’이라는 영어 단어, 즉 헬라어 ‘Holos’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전부의’, ‘온전한’, ‘전체의’, ‘분리되지 않는’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어원적으로 ‘통전적(holistic)’은 ‘전체적(whole)’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개체성을 무시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개체를 인정하는 총체(gross)로서의 통합(total)이다.”[57]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이고,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이다. “이 통전적이라는 단어에는 우주가 통합된 형태로 전체로 이루어져 사실상 이러한 전체는 부분의 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결과 소통과 상호 교류의 통합을 의미한다.”[58]

통전적 성장은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회중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을 지향하여 나아간다. 예배생활, 성경읽기, 기도 등 영적인 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

둘째, 통전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의 총체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으로 성장”[59]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삶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소외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

---

[56] 이종성,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53-54.
[57] Darrell Guder, “*Towards Holistic Theology of Mission: World, Community, Neighbor,*” 「선교와 신학」 제15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5), 154.
[58]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 교육* <개정판>, (서울: 동연출판사, 2010), 13.
[59] 케네스 리치, *영성과 목회* 최승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9-10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현실화 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손 내밀고 사랑을 나누며 이웃사랑과 섬김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통해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통전적 성장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내면적인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외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천하며 전달하며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울게 된다. 내적, 외적 변화와 성장이 통합되어 온전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균형잡힌 통합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1) 통설교를 통한 내적 변화

통설교는 회중의 가치관이나 믿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모습에 영향을 준다. “설교의 목적은 회중의 변화”[60] 이다. 잭 쿠하쉑은 “적용의 목표가 바로 청중의 변화에 있다”[61]고 말했다.

설교는 단지 전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 태도와 신앙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고, 성경에 대해 무관심했던 삶의 모습들이 통설교를 통해 변화한다. 그러한 내적 변화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60] 류응렬, “설교의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 204 (2006년 6월호), 112.
[61] 잭 쿠하쉑, *어떻게 성경을 적용할것인가?* 정애숙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28.

하나님의 마음알기

통설교를 통한 첫 번째 내적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회중은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적인 성장이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인격,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이라 정의 할 수 있다.” [62] 통설교를 통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믿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며, 이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통설교를 통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

통설교로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 상반되는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흘러 내려옴을 알게 된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두고 방주는 구원을, 홍수는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노아의 가족 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성경 전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경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

---

[62]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230.

믿음의 성장

통설교를 통한 두 번째 내적 변화는 믿음의 성장이다.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63]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면에 자리 잡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교회에 명령된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이다."[64] 그렇다면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1년 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보다 10년 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설교의 홍수 속에 살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많다.

설교는 성경의 이야기를 현재를 사는 회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성경의 처음 혹은 중간이나 결말만 들었을 때 받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많은 설교자가 주제 설교로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인용하는 취사선택은 결국 믿음을 그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통설교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으로 전달하기에 성도들은 이야기의 전체 맥락 안에서 부분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

---

[63]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64] 칼 바르트, *설교학 원강* 박근원 역 (서울: 전망사, 1981), 41.

기도의 회복

통설교를 통한 세 번째 내적 변화는 기도의 회복이다.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 또는 그 의식을 말한다.”[65]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다. 따라서 깊은 생각의 기반 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66]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 채 기도하는 시늉만 하고, 혹은 기도를 묵상이나 명상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기도의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67] 기독교의 묵상은 성경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기도와 성경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충분히 반추해야 하며,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아는 만큼 구할 수 있다. 단편적인 내용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기도에 불과하다. 통설교를 통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더 다양하고 폭넓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

성경통독의 회복

통설교를 통한 네 번째 내적 변화는 성경통독의 회복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이야기를 실현하며,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로 자신과 이웃 그리고

---

[65] 염동성, *성경 찬송 낱말 사전* (서울: 성광문화사, 2000), 96.
[66]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 3 (서울: 통독원, 2017), 9.
[67] 제임스 패커, *주기도문* 김진웅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15.

세상을 연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로 세상을 배운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68] 성경은 75% 이상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통설교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회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한다.

통설교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달될 때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된다.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은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독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대개 '위대한'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다닌다." [69] 통설교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회중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회중은 성경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경 읽기, 더 나아가 성경통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2) 통설교를 통한 외적 변화

통설교를 통해 회중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행동과 행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통설교를 통한 외적 변화다. 통설교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동안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삶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외적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위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통설교를 통해 변화된 외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

[68]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 152-153.
[69]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웅진닷컴, 2003), 191.

이웃사랑의 회복

통설교를 통한 첫 번째 외적 변화는 이웃 사랑의 회복이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사고와 분위기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시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통설교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행동 양식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으로 변화시킨다.

신명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들까지도 '형제'라는 개념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려고 했다. 신명기 15장에 "매 칠년마다 채무탕감과 노예해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빈곤계층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면제년[70] 제도가 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인간 삶의 방식 대부분에서 이웃과의 나눔과 평화를 강조한다.

통설교에는 이웃 사랑의 실제 모습이 담겨 있다. 룻기에서 추수할 때 밭 네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 놓는 것[71]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명령이다. 그 말씀을 지킨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회중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당위성을 발견하며, 현실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주변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는 성경 속 모습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72]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

[7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임성빈, *공공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39

[71]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23:22)

[72] 누가복음 10장 30절 - 37절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됨을 깨닫게 된다. 말씀을 들은 후 회중의 삶에 이웃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변화되는 것이 통설교를 통한 외적 변화다.

전도의 회복

통설교를 통한 두 번째 외적 변화는 전도의 회복이다. 통설교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전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73]을 볼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치열하게 산 삶은 등한시한 채 복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에만 집중한다. 통설교는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한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 모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매주 선포되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의 일부분이다" [74] 전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전하고 알리는 일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복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는 시간 대부분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할애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으며, 그분 삶의 목적 자체가 전도였다. 우리는 통설교를 통해 "구령사업이라는 전도의 나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전도의 숲을 조망해야 한다." [75] 좀 더 확대된 관점에서

---

[73]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 6:14).

[74] 토마스 롱,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93

[75]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서울: SFC, 2014), 24.=

전도를 보아야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고 치열하게 보여 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유언이다.[76] 전도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감동이 되며, 외적인 변화도 가져온다.[77]

삶의 회복

통설교를 통한 세 번째 외적 변화는 회중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다. 통설교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때 내면에 있는 울타리들이 무너지게 된다.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분노, 원망과 좌절, 절망 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난다. 죄에 대해 확실하게 끊고 버리는 태도를 취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통설교에는 삶이 회복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그 결과를 자세히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삶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상 숭배에 저항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주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

[76]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77] *강하룡,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21-22.

회중은 통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용기를 얻게 된다. 이전에는 삶의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이들이 통설교를 통해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3) 통설교를 통한 통전적 변화

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변화와 성장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회중에게 통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통설교로 말씀이 선포되면 회중에게 변화가 나타난다.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각기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통전적 성장의 특징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전적 성장은 성도의 인격과 삶에 드러나는 바람직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통전적 성장의 좋은 모델은 바로 요셉이다.[78] 요셉의 삶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삶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오해하게 된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요셉은 노예나 죄수 등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그 결과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

[78]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2-3).

형제들을 용서했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7년 흉년 동안 먹여 살렸으며, 애굽과 주변 국가의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통전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변의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과의 관계속와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이 노력이다

통설교를 통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외적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통전적 변화다.

제 Ⅳ 장

통설교 실행: 합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Ⅱ장에서 통성경과 통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Ⅲ장에서는 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신앙 성장과 변화에 대해 논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담임목사로 섬기는 합성교회의 주일예배 설교에 통설교를 적용한 사례와 그에 대한 회중의 평가 및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리하여 통설교로 인하여 회중의 신앙성장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행하고 평가한다

합성교회의 상황

합성교회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속해 있으며, 1952년 10월 5일 창립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다. 현재까지 총 14대 담임자가 사역했으며, 14대 담임자였던 구동태 감독이 1968년부터 2012년까지 44년간 시무했고, 15대 담임자인 필자가 현재까지 10년동안 사역하고 있다. 합성교회는 2022년 현재 재적 인원 약 1,500명에 출석 인원 1,000여 명이 예배하는 중대형 교회다. 합성교회 회중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대부분이며,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 특별히 올해 교회 개척 70주년을 맞이해 ‘지교회 건립’ 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성도의 신앙 부흥과 성장을 모토로 함께 사역하고 있다.

통설교의 실행 절차

합성교회에서 52주간 주일예배 시간에 통설교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얼마나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성교회 회중에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런 가운데 성경 66권 전체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40개의 주요 주제로 정리한 '통성경 포뮬라'의 40개 이야기 줄기를 기준 삼아 설교했다.

통설교는 성경 이야기를 통전적이고 전체적으로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인 만큼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 줄기는 통설교의 근간이 될 만큼 중요하다. 통성경 포뮬라의 '40 이야기 줄기'는 <표 1>과 같다.

<표1> 통성경 40 이야기 줄기

7Track		40줄기
Track 1 모세오경	1	원역사 - 모든 것의 시작(창 1-11장)
	2	족장사 - 아브라함, 이삭, 야곱(창 12-36장)
	3	입(入)애굽과 민족의 발아 - 지도자 요셉(창 37-50장)
	4	출(出)애굽과 제국 - 지도자모세(출 1-18장)
	5	세계 선교의 꿈, 거룩한 제사장 나라 -

		제사장 나라(출 19-40)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 제사장나라 교과서(레)
	7	만나 세대의 성장 - 제사장 나라 학교(민)
	8	만나 학교 졸업 설교 - 제사장 나라학교 졸업(신)
Track 2 왕정 500년	9	약속의 땅 입성 - 졸업생 성공 사례(수)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 졸업생 자녀 교육 실패 사례(삿)
	11	교육의 성공사례 - 졸업생 자녀 교육 성공 사례(룻)
	12	미스바 세대의 탄생 - 사무엘의 설득(삼상 1-7장)
	13	왕정의 시작 - 최초의 왕 사울(삼상 8-31)
	14	하나님의 종 다윗 - 다윗(삼하, 왕상 1-2장)
	15	솔로몬과 시가서 - 솔로몬(왕상 3-11장, 잠, 아, 전, 욥, 시)
	16	남북왕국의 분열 - 분단 200년 (왕상 12-22장, 왕하 1-14장, 암, 호, 욘)
Track 3 페르시아 7권	17	북이스라엘의 멸망 - 사마리아인 시작 (왕하 15-20장, 사, 미)
	18	남유다의 쇠락 -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하 21-23장, 습, 합, 나, 욜)
	19	잠깐의 징계 - 예레미야의 성득 (왕하 24-25장, 렘, 애, 옵, 대상, 대하)

Track 4 신구약중 간사	20 21	포로민 설득 - 에스겔(겔) 제국변경의 밑그림 - 다니엘(단)
	22	성전재건 - 스룹바벨 총독(스, 학, 슥, 에)
Track 5 4 복음서	23	성벽재건 - 느헤미야 총독(느)
	24 25	고백과 침묵 - 1,500년 사랑 고백(말) 헬라제국과 중간사 - 수전절 시작
	26	로마제국과 중간사 - 분봉 왕 시작
	27 28	예수님의 탄생 - 기쁨을 위한 탄생(마) 공생애 3년 - 한 영혼 사랑(막)
	29	마지막 일주일 - 용서를 향한 열정(눅)
	30 31	십자가의 승리 -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요) 열리는 제자시대 - 그리스도인의 시작(행 1-12장)
	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13-15:35)
Track 6 사도행전 30년	33 34	바울의 2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15:36-18:22, 살전,살후, 갈) 바울의 3차 전도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 (행 18:23-19장, 고전,고후)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행 20-26장, 롬)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 바울의 편지들(행 27-28장, 엡, 빌)
Trackn7 공동서신 9권	37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 바울의 편지들(골, 몬)
	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겨진 편지 - 바울의 편지들 (딤전, 딛, 딤후)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선한싸움 / No 악한싸움 (히, 약, 벧전, 벧후,유)
	40	최후 승리의 노래 - 최후 승리확신 / No 의심 (요일, 요이, 요삼, 계)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에는 원로목사가 있으며, 매달 마지막 주 설교를 원로목사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합성교회의 1년 설교는 필자가 진행하는 통성경 포뮬라 설교 40주와 원로목사의 설교[79] 12주로 52주 동안 진행되었다.

통성경 포뮬라 40줄기를 기준으로 40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2021년 1년간 매주일 오전 9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 회중에게 선포했다. 2021년에 시행된 통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2> 2021년 합성교회 1년 설교본문

[79]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원로목사는 통성경학교와 렉처러 코스를 수료한 분으로, 통성경과 통설교에 전혀 무지한 분이 아니다.

1월	3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창6:5-8
	10	그땅으로 가라	창12-1:9
	17	참으로 우리의 왕이겠느냐?	창37-5-11
	24	반드시 내가 함께 있으리라	출 3:9-12
	31	일곱째 날의 축복	출 20:8-11
2월	7	명하신 대로 되리라	출40:17-33
	14	너희는 거룩하라	레19:1-4
	21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민14:26-35
	28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신 6:4-9
3월	7	그들과 세우신 언약	신29:1
	14	마른땅으로 건너갔더라	수3:14-17
	21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삿17:6
	28	막대기 하나의 역사	삿3:12-20
4월	4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1:15-18
	11	여기까지 도우시니	삼상 7:12-14
	18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삼상 8:4-9
	25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삼상 30:1-6
5월	2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삼하 8:3-8
	9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왕상 3:4-15

	16	머뭇거리려 하느냐	왕상 18:20-24
	23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사야55:6-13
	30	반드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1:1-3
6월	6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2:2-3
	13	초점있는 삶을 살아가기	학 2:1-9
	20	여호와의 권능이	겔1:1-3
	27	영적 편협함	욘4:1-11
7월	4	뜻을 정하여	단1:8-16
	11	마음을 감동시키매	스1:1-4
	18	52일의 역사	느6:15-19
	25	크게 즐거워 하여	느12:43
8월	1	만군의 여호와가	말1:6-15
	8	임마누엘	마1:18-25
	15	성도의 참된 심령	마13:10-23
	22	믿음으로 세상바라보기	막9:25-29
	29	자식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눅 15:11-32
9월	5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눅22:39-46
	12	성령을 받으라	요20:19-23
	19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6-11

	26	복음을 향한 열정	행13:4
10월	3	칭찬받는 자 디모데	행16:1-5
	10	같은 마음, 같은 뜻	고전1:10-17
	17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15-17
	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5:22-24
	31	부르심 앞에서	롬1:1-7
11월	7	진정한 예배자	롬12:1-2
	14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2:1-11
	21	교회의 일꾼	골1:24-29
	28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5:4-6
12월	5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며	딤1:3-11
	12	믿음으로	히11:1-12
	19	에배소 교회와 같이	계2:1-7
	26	속히 오리라	계22:20

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가시적 변화

통설교를 진행하면서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회 프로그램은 하향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교회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면 회중이 그 방향에 맞춰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통설교를 진행하는 동안 회중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기존과 달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요청과 제안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진행되었다. 통설교를 통한 합성교회 회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전교인 성경통독 및 큐티 실시

주일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통설교를 통해 회중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이후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회중 안에 자발적인 성경통독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성경 읽기는 교회 차원에서 성도의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쳤는데, 통설교를 진행하면서 회중 내에서 자발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성경 읽기 모임은 조병호 박사가 고안한 ‘1년 1독 역사순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년 1독 성경통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1년1독 통독성경, 1-3월 목차

1월			2월			3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1	창 1~2장	1	32	출 39~40장	1	60	신 5~6장
2	2	창 3~5장	2	3	레 1~5장	2	61	신 7~9장
3	3	창 6~9장	3	34	레 6~7장	3	62	신 10~11장
4	4	창 10~11장	4	35	레 8~10장	4	63	신 12~14장
5	5	창 12~14장	5	36	레 11~13장	5	64	신 15~17장
6	6	창 15~17장	6	37	레 14~15장	6	65	신 18~21장
7	7	창 18~21장	7	38	레 16~17장	7	66	신 22~26장
8	8	창 22~24장	8	39	레 18~20장	8	67	신 27~28장
9	9	창 25~27장	9	40	레 21~22장	9	68	신 29~30장
10	10	창 28~30장	10	41	레 23~25장	10	69	신 31~32장
11	11	창 31~33장	11	42	레 26~27장	11	70	신 33~34장, 시 90편
12	12	창 34~36장	12	43	민 1~2장	12	71	수 1~2장
13	13	창 37~38장	13	44	민 3~4장	13	72	수 3~5장
14	14	창 39~41장	14	45	민 5~6장	14	73	수 6~8장

15	15	창 42~44장	15	46	민 7~8장	15	74	수 9~12장
16	16	창 45~47장	16	47	민 9장~10:10	16	75	수 13~17장
17	17	창 48~50장	17	48	민 10:11~12장	17	76	수 18~19장
18	18	출 1~2장	18	49	민 13~14장	18	77	수 20~22장
19	19	출 3~4장	19	50	민 15~17장	19	78	수 23~24장
20	20	출 5~7장	20	51	민 18~19장	20	79	삿 1장~2:10
21	21	출 8~10장	21	52	민 20~21장	21	80	삿 2:11~5장
22	22	출 11~13장	22	53	민 22~25장	22	81	삿 6~7장
23	23	출 14~15장	23	54	민 26~27장	23	82	삿 8~9장
24	24	출 16~18장	24	55	민 28~30장	24	83	삿 10~12장
25	25	출 19~20장	25	56	민 31~32장	25	84	삿 13~16장
26	26	출 21~23장	26	57	민 33~36장	26	85	삿 17~18장
27	27	출 24~27장	27	58	신 1~2장	27	86	삿 19~21장
28	28	출 28~29장	28	59	신 3~4장	28	87	룻 1~4장
29	29	출 30~31장				29	88	삼상 1~3장
30	30	출 32~34장				30	89	삼상 4~7장
31	31	출 35~38장				31	90	삼상 8~10장

<표4> 1년1독 통독성경, 4-6월 목차

4월			5월			6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91	삼상 11~12장	1	121	잠 21~24장	1	152	시 91~102편
2	92	삼상 13~14장	2	122	잠 25~29장	2	153	시 103~106편
3	93	삼상 15~16장	3	123	잠 30~31장	3	154	시 107~118편
4	94	삼상 17~18장	4	124	아 1~4장	4	155	시 119편
5	95	삼상19장, 시50편	5	125	아 5~8장	5	156	시 120~134편
6	96	삼상 20~21장, 시 34편	6	126	왕상 11장	6	157	시 135~142편
7	97	삼상 22장, 시52편	7	127	전 1~3장	7	158	시 143~150편
8	98	삼상 23~24장, 시 57편	8	128	전 4~7장	8	159	왕상 12~14장
9	99	삼상 25~26장, 시 54편	9	129	전 8~12장	9	160	왕상15~16:20
10	100	상 27~31장	10	130	욥 1~3장	10	161	왕상 16:21~17장

11	101	삼하 1~2장	11	131	욥 4~7장	11	162	왕상 18~19장
12	102	삼하 3장~5:5	12	132	욥 8~10장	12	163	왕상 20~22장
13	103	삼하 5:6~6장	13	133	욥 11~14장	13	164	왕하 1~2장
14	104	삼하 7~10장	14	134	욥 15~17장	14	165	왕하 3~5장
15	105	삼하 11~12장, 시 51편	15	135	욥 18~19장	15	166	왕하 6~8장
16	106	삼하 13~14장	16	136	욥 20~21장	16	167	왕하 9~10장
17	107	삼하 15장, 시 3편	17	137	욥 22~24장	17	168	왕하 11~14장
18	108	삼하 16~17장	18	138	욥 25~31장	18	169	암 1~5장
19	109	삼하 18~20장	19	139	욥 32~37장	19	170	암 6~9장
20	110	삼하 21~22장	20	140	욥 38~42장	20	171	호 1~4장
21	111	삼하 23~24장	21	141	시 1~2, 4~9편	21	172	호 5~9장
22	112	왕상 1~2장	22	142	시 10~18편	22	173	호 10~14장
23	113	왕상 3~4장	23	143	시 19~27편	23	174	욘 1~4장
24	114	왕상 5~7장	24	144	시 28~33편	24	175	왕하 15~16장
25	115	왕상 8장	25	145	시 35~41편	25	176	왕하 17~18:12
26	116	왕상 9~10장	26	146	시 42~50, 53편	26	177	사 1~3장
27	117	잠 1~5장	27	147	시 55~56, 58	27	178	사 4~7장

					60~66편			
28	118	잠 6~9장	28	148	시 67~72편	28	179	사 8~12장
29	119	잠 10~15장	29	149	시 73~78편	29	180	사 13~17장
30	120	잠 16~20장	30	150	시 79~85편	30	181	사 18~20장
			31	151	시 86~89편			

<표5> 1년1독 통독성경, 7-9월 목차

7월			8월			9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182	사 21~24장	1	213	렘 34~36장	1	244	겔 4~7장
2	183	사 25~29장	2	214	렘 37~38장	2	245	겔 8~11장
3	184	사 30~35장	3	215	왕하 25장, 렘 39~41장	3	246	겔 12~14장
4	185	왕하 18:13~37 사 36장	4	216	렘 42~45장	4	247	겔 15~17장
5	186	왕하 19장, 사 37장	5	217	렘 46~48장	5	248	겔 18~20장
6	187	왕하 20장,	6	218	렘 49~50장	6	249	겔 21~22장

		사 38~39장						
7	188	사 40~42장	7	219	렘 51~52장	7	250	겔 23~24장
8	189	사 43~45장	8	220	애 1~2장	8	251	겔 25~28장
9	190	사 46~50장	9	221	애 3~5장	9	252	겔 29~32장
10	191	사 51~55장	10	222	옵 1장	10	253	겔 33~35장
11	192	사 56~59장	11	223	대상 1~3장	11	254	겔 36~37장
12	193	사 60~63장	12	224	대상 4~5장	12	255	겔 38~39장
13	194	사 64~66장	13	225	대상 6~9장	13	256	겔 40~41장
14	195	미 1~3장	14	226	대상 10~12장	14	257	겔 42~43장
15	196	미 4~7장	15	227	대상 13~16장	15	258	겔 44~46장
16	197	왕하 21~23장	16	228	대상 17~20장	16	259	겔 47~48장
17	198	습 1~3장	17	229	대상 21~22장	17	260	단 1~2장
18	199	합 1~3장	18	230	대상 23~26장	18	261	단 3~4장
19	200	나 1~3장	19	231	대상 27~29장	19	262	단 5~6장
20	201	욜 1~3장	20	232	대하 1~4장	20	263	단 7~9장
21	202	왕하 24장, 렘 1~3장	21	233	대하 5~7장	21	264	단 10~12장
22	203	렘 4~6장	22	234	대하 8~9장	22	265	스 1~2장

23	204	렘 7~9장	23	235	대하 10~13장	23	266	스 3~4장
24	205	렘 10~13장	24	236	대하 14~17장	24	267	학 1~2장
25	206	렘 14~16장	25	237	대하 18~22장	25	268	슥 1~6장
26	207	렘 17~20장	26	238	대하 23~25장	26	269	슥 7~10장
27	208	렘 21~23장	27	239	대하 26~28장	27	270	슥 11~14장
28	209	렘 24~25장	28	240	대하 29~31장	28	271	스 5~6장
29	210	렘 26~28장	29	241	대하 32~33장	29	272	에 1~5장
30	211	렘 29~31장	30	242	대하 34~36장	30	273	에 6~10장
31	212	렘 32~33장	31	243	겔 1~3장			

<표6> 1년1독 통독성경, 10-12월 목차

10월			11월			12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274	스 7~8장	1	305	눅 21~22장	1	335	행 20:1~6, 롬 1~3장
2	275	스 9~10장	2	306	눅 23~24장	2	336	롬 4~7장
3	276	느 1~3장	3	307	요 1~3장	3	337	롬 8~11장
4	277	느 4~7장	4	308	요 4~6장	4	338	롬 12~14장

5	278	느 8~10장	5	309	요 7~8장	5	339	롬 15~16장
6	279	느 11~13장	6	310	요 9~11장	6	340	행 20:7~23장
7	280	말 1~4장	7	311	요 12~13장	7	341	행 24~26장
8	281	마 1~4장	8	312	요 14~15장	8	342	행 27~28장
9	282	마 5~7장	9	313	요 16~17장	9	343	엡 1~3장
10	283	마 8~10장	10	314	요 18~19장	10	344	엡 4~6장
11	284	마 11~13장	11	315	요 20~21장	11	345	빌 1~4장
12	285	마 14~16장	12	316	행 1~2장	12	346	골 1~4장
13	286	마 17~20장	13	317	행 3~5장	13	347	몬 1장
14	287	마 21~23장	14	318	행 6~9장	14	348	딤전 1~6장
15	288	마 24~25장	15	319	행 10~12장	15	349	딛 1~3장
16	289	마 26~28장	16	320	행 13~15:35	16	350	딤후 1~4장
17	290	막 1~3장	17	321	행 15:36~18:22	17	351	히 1~4장
18	291	막 4~6장	18	322	살전 1~5장	18	352	히 5~10장
19	292	막 7~8장	19	323	살후 1~3장	19	353	히 11~13장
20	293	막 9~10장	20	324	갈 1~3장	20	354	약 1~5장
21	294	막 11~13장	21	325	갈 4~6장	21	355	벧전 1~5장
22	295	막 14~16장	22	326	행 18:23~19장	22	356	벧후 1~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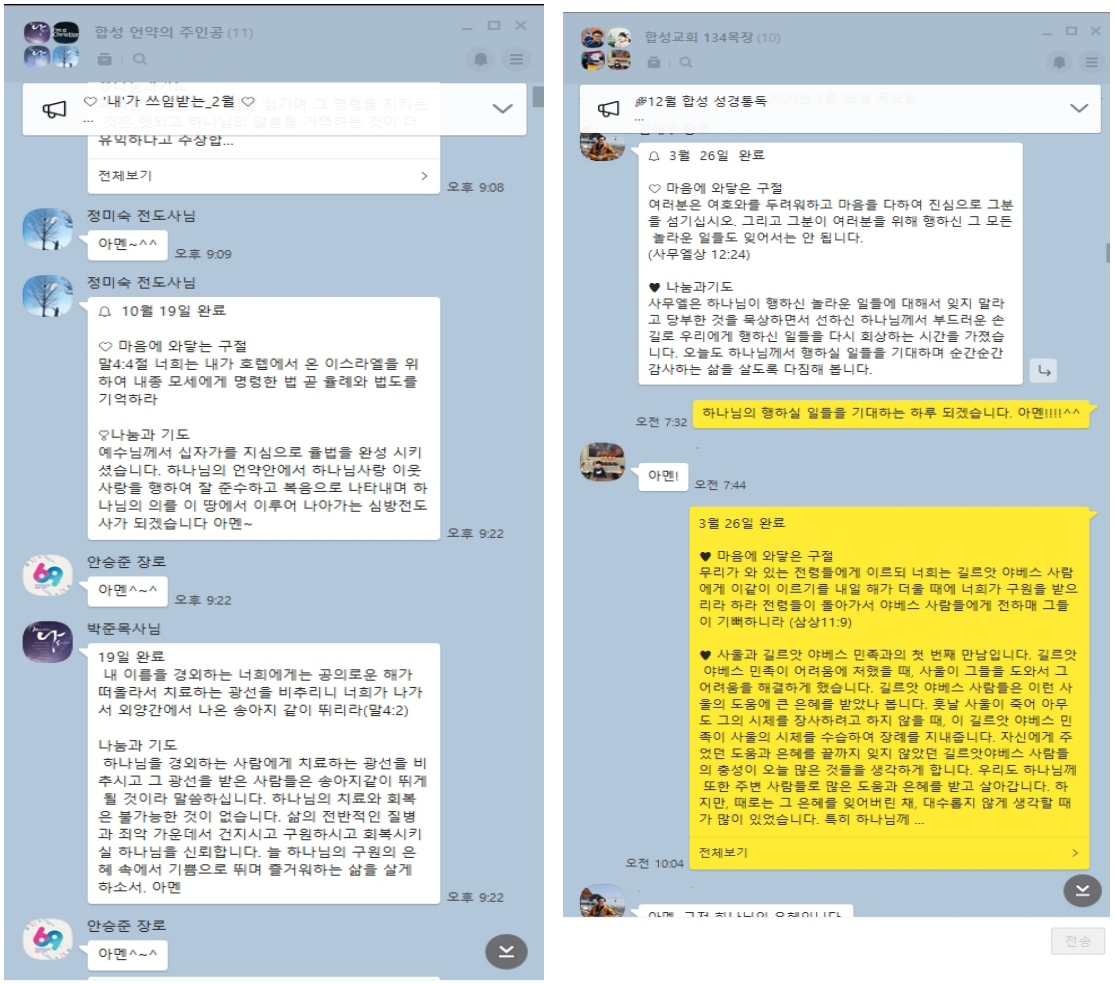
23	296	눅 1~2장	23	327	고전 1~4장	23	357	유 1장
24	297	눅 3~4장	24	328	고전 5~8장	24	358	요일 1~5장
25	298	눅 5~6장	25	329	고전 9~11장	25	359	요이 1장, 요삼 1장
26	299	눅 7~8장	26	330	고전 12~14장	26	360	계 1~3장
27	300	눅 9~10장	27	331	고전 15~16장	27	361	계 4~7장
28	301	눅 11~13장	28	332	고후 1~4장	28	362	계 8~11장
29	302	눅 14~16장	29	333	고후 5~9장	29	363	계 12~15장
30	303	눅 17~18장	30	334	고후 10~13장	30	364	계 16~18장
31	304	눅 19~20장					365	계 19~22장

또한 회중은 성경을 읽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마다[80] 카카오톡에 단체방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깨달은 점을 나누는 큐티 모임도 병행했다. 하루 동안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이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도전과 다짐 그리고 기도 내용을 작성해 목장 단톡방에 올린다. 단톡방에 올린 큐티 말씀에 목장 식구들은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더 나아가 주일 설교 내용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확장시켜 나간다.

[80] 합성교회에는 현재 79개의 목장이 있으며, 목장마다 10~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를 통설교로 전환하여 설교를 진행했는데, 회중들의 자발적인 성경통독과 큐티모임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1> 합성교회 성경통독 큐티 나눔



기도모임

통설교를 통해 회중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목장별, 지역별로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된 것이다. 기존의 기도 모임은 매일 저녁 8시에 원하는 성도들만 나와 자유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통설교 이후 새로 시작된 기도 모임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띄게 되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기도 모임이 '찬양－설교 나눔－기도'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담당 목장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지역장이 나와서 주일에 했던 설교 내용을 요약 정리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 모임이 진행된다.

<표7> 기도모임의 일정과 내용

시간	내용	담당자
20:00-20:10	찬양	목자
20:10-20:25	통설교 나눔	지역장
20:25-21:00	합심기도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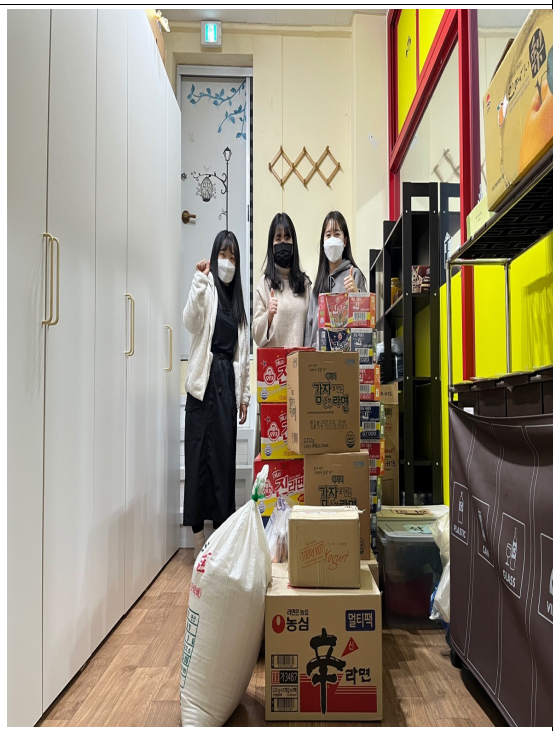
이웃사랑과 구제의 실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제가 증가한 것도 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변화 중 하나다. 기존에는 교회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구제 활동을 했다. 구제 대상도 교회에서 선정했다. 구제와 이웃 사랑이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회중의 참여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통설교를 통해 이웃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회중 스스로 구제 물품을 모금하고 섬김의 대상을 정해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섬김의 손길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증가하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려는 움직임들이 회중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2> 구제와 이웃사랑



전도의 활성화

통설교로 회중의 신앙이 성장한 또 다른 측면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합성교회에서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전도 축제를 진행한다. 전반기에는 대그룹 전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 후반기에는 '가족에게 복음을, 이웃에게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장 전도 축제로 진행한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대그룹 전도로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초청주일을 정해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전도축제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소그룹 전도는 교회로 직접 초청하기 어려운 전도 대상자들은 목장으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축제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매년 반복되는 전도축제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전도되는 숫자도 정체되는 현상을 겪던 와 중 특별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전보다 전도의 열정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도자들이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교회 차원의 전도와 선교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고, 필자의 교회 역시 코로나 이슈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했던 단 하나의 변화는 기존의 설교 형식을 통설교로 바꾼 것이다. 통설교를 통해 회중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사명에 대해 설교한 결과, 놀랍게도 이전과 다른 유의미한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 회중들의 전도의 대한 열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전도를 의무라고 생각했던 회중들이 이제는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을 받아들이고,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이슈로 전도인원이 정체되고 줄어들었던 2020년에 비해, 통설교를

진행한 2021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전도의 숫자가 약 15% - 2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8> 연도별 전도인원 변화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반기 (대그룹전도축제)	126	134	142	91	158
후반기 (소그룹전도축제)	135	155	173	65	192

회중들이 통설교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고 이웃과 주변사람들의 대한 사랑이 증가함에 따라 전도의 열정과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제 Ⅴ 장

통설교의 평가 : 합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필자는 합성교회에서 10년째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담임목사로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항상 고민한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목적이다. 이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기에 52주 동안 주일예배 설교를 통설교로 전환해 선포했다. 기존의 주제 설교, 대지 설교에 익숙해 있던 회중에게는 낯선 시도가 될 수 있지만, 통설교야말로 회중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 인터뷰의 목적

통설교를 통한 회중의 통전적 성장을 평가하는 데 정량화된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설교라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은혜의 정도가 다른 만큼, 회중의 상황과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기존 설교와 통설교를 들었을 때 경험한 회중의

신앙 변화와 성장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서면 인터뷰에 다 담을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통설교가 회중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미치는지 확인하고 했다.

2) 인터뷰의 대상

통설교 평가를 위한 인터뷰는 합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를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직분별로 2개조씩 나누어 인터뷰를 시행했다. 총 92명의 서면 인터뷰와 8명의 추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를 얻고 통설교가 회중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인터뷰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②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설교, 찬양, 훈련, 선교, 구제, 기도 등에서 선택

③ 설교가 신앙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④ 통설교와 기존설교 중 어느 설교가 더 호감가는 설교입니까?

⑤ 통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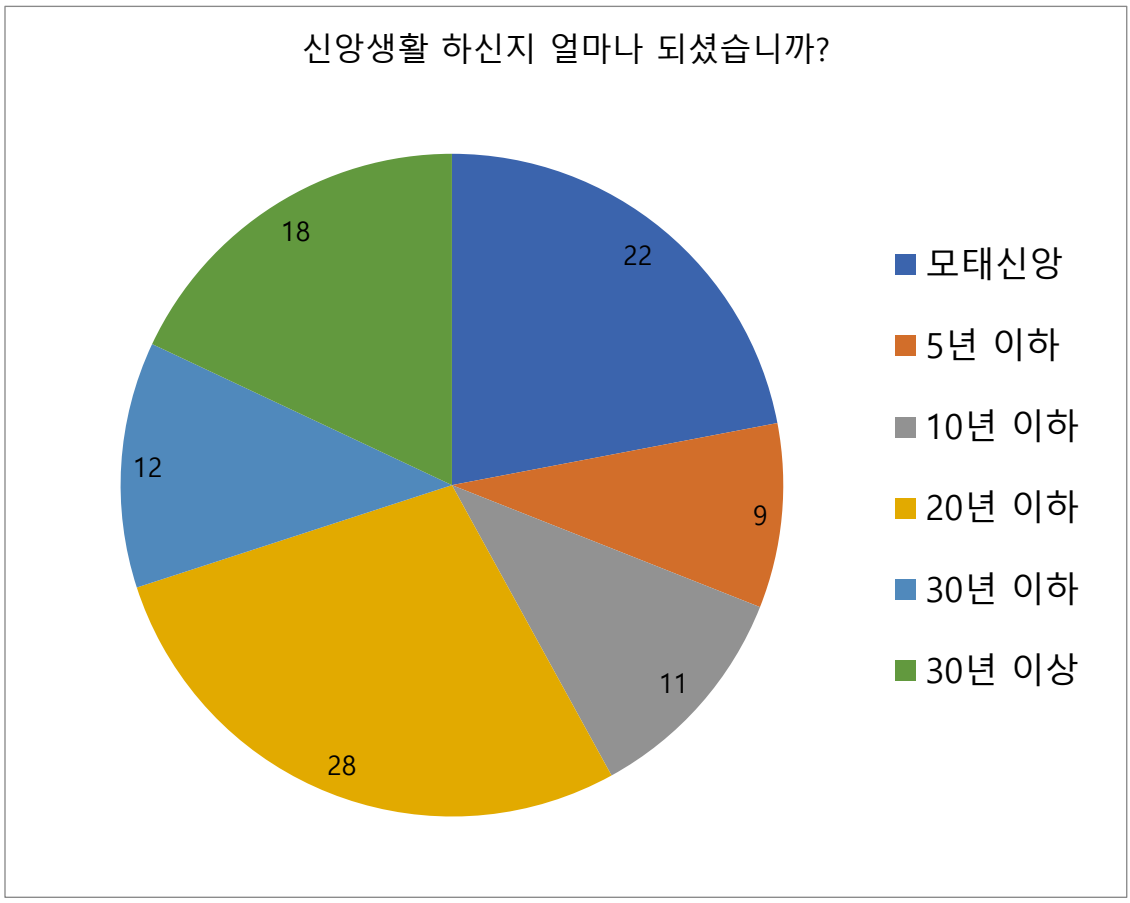
⑥ 통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⑦ 통설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3) 인터뷰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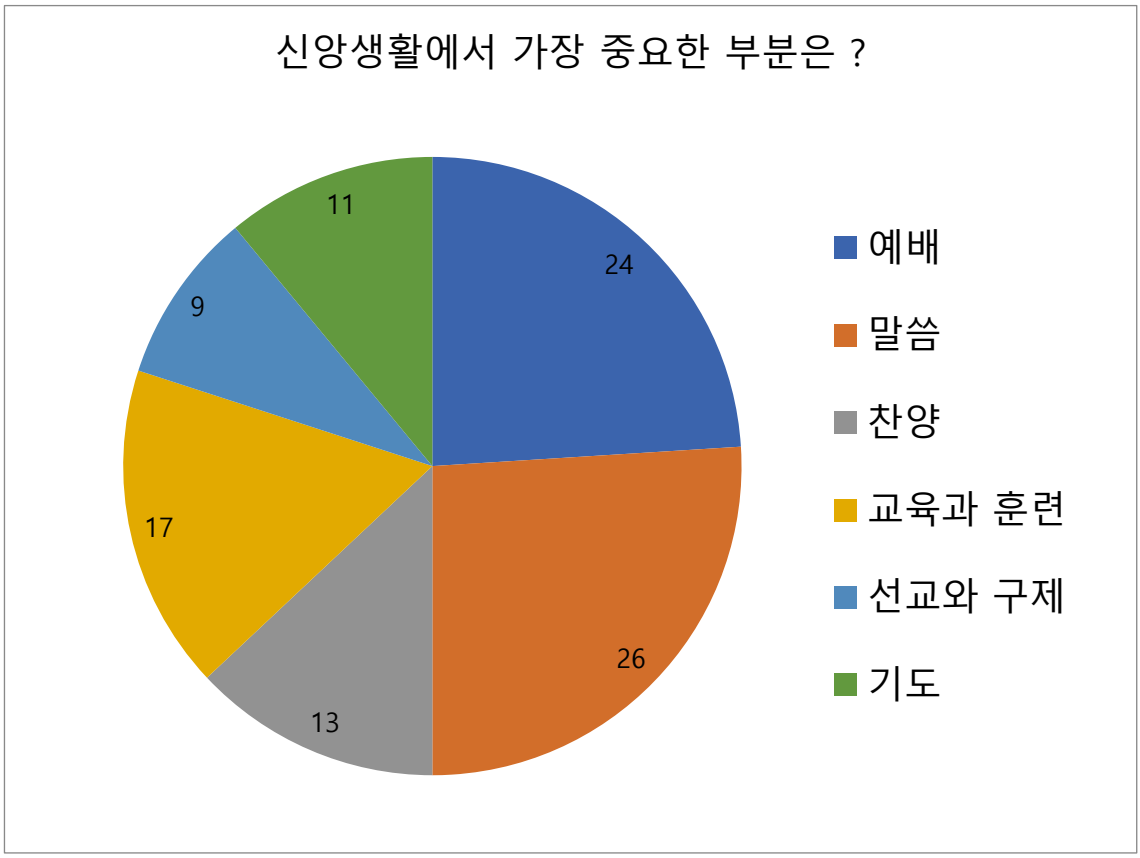
합성교회 성도 100명을 대상으로 통설교가 회중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면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종합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객관화했다.

<표9> 신앙생활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터뷰 대상자들의 신앙생활 연수를 조사한 결과 '모태신앙' 22%, '5년 이하' 9%, '10년 이하' 11%, '20년 이하' 28%, '30년 이하' 12%, '30년 이상' 18%로 나타났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 연수가 골고루 편성되어 자료의 객관성이 더 많이 확보되었다. 해당 설문 결과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58% 이상으로 나타난 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회중이 많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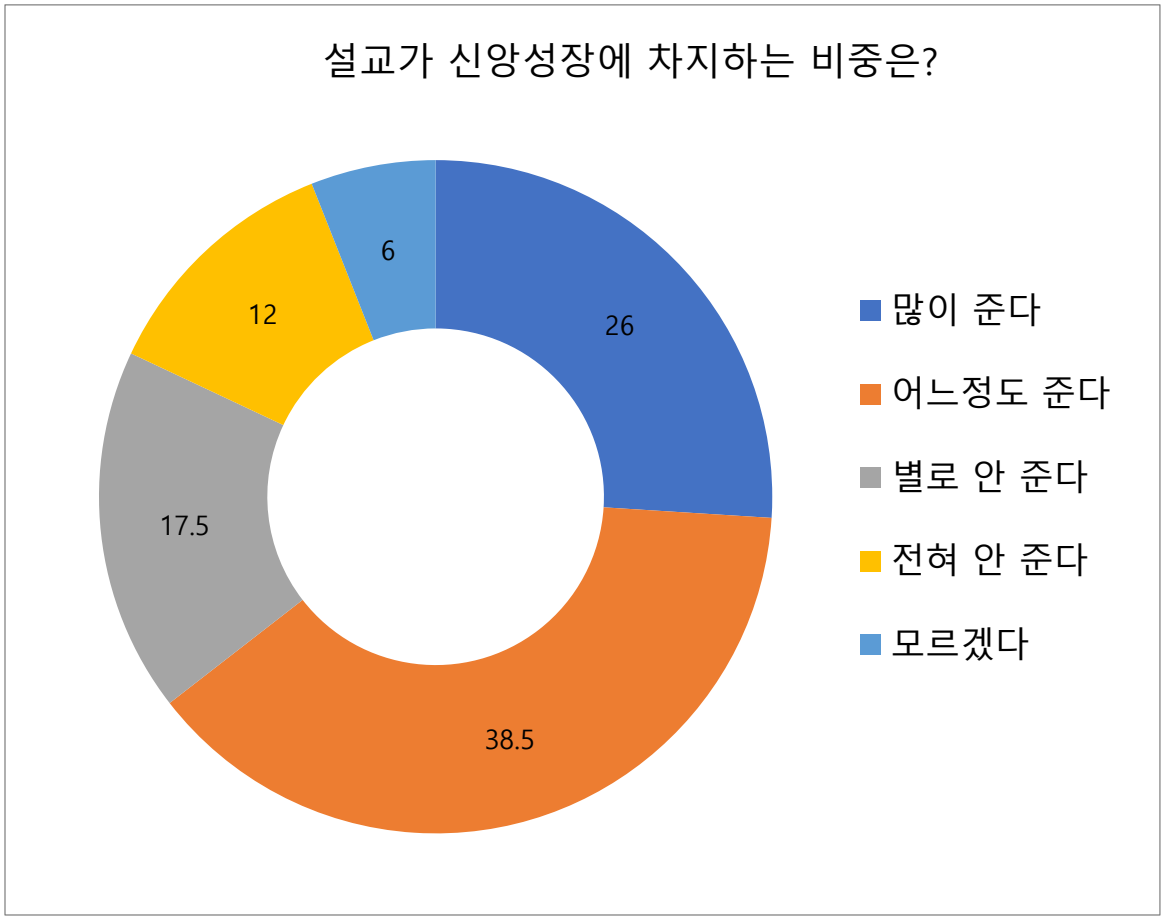
<표10>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과 훈련' 17%, '찬양' 13%, '기도' 11%, '선교와 구제' 9%로 응답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회중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예배와 은혜를 줄 수 있는 설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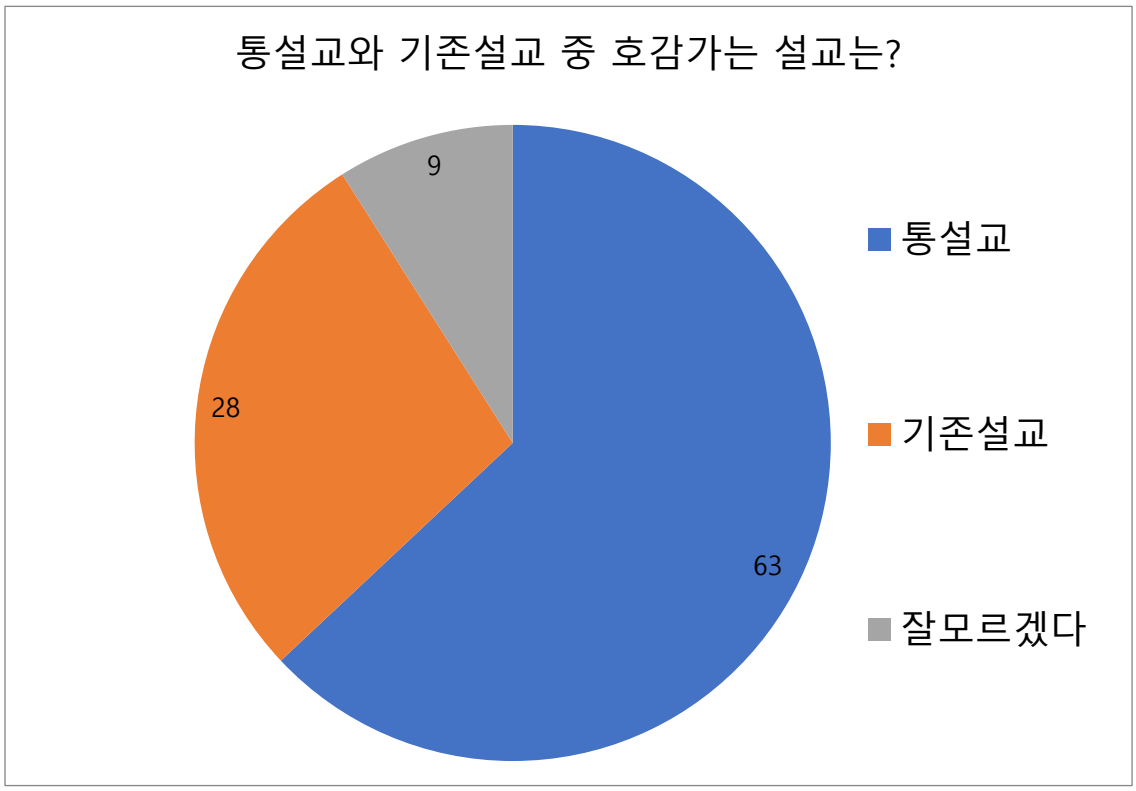
.

<표11> 설교가 신앙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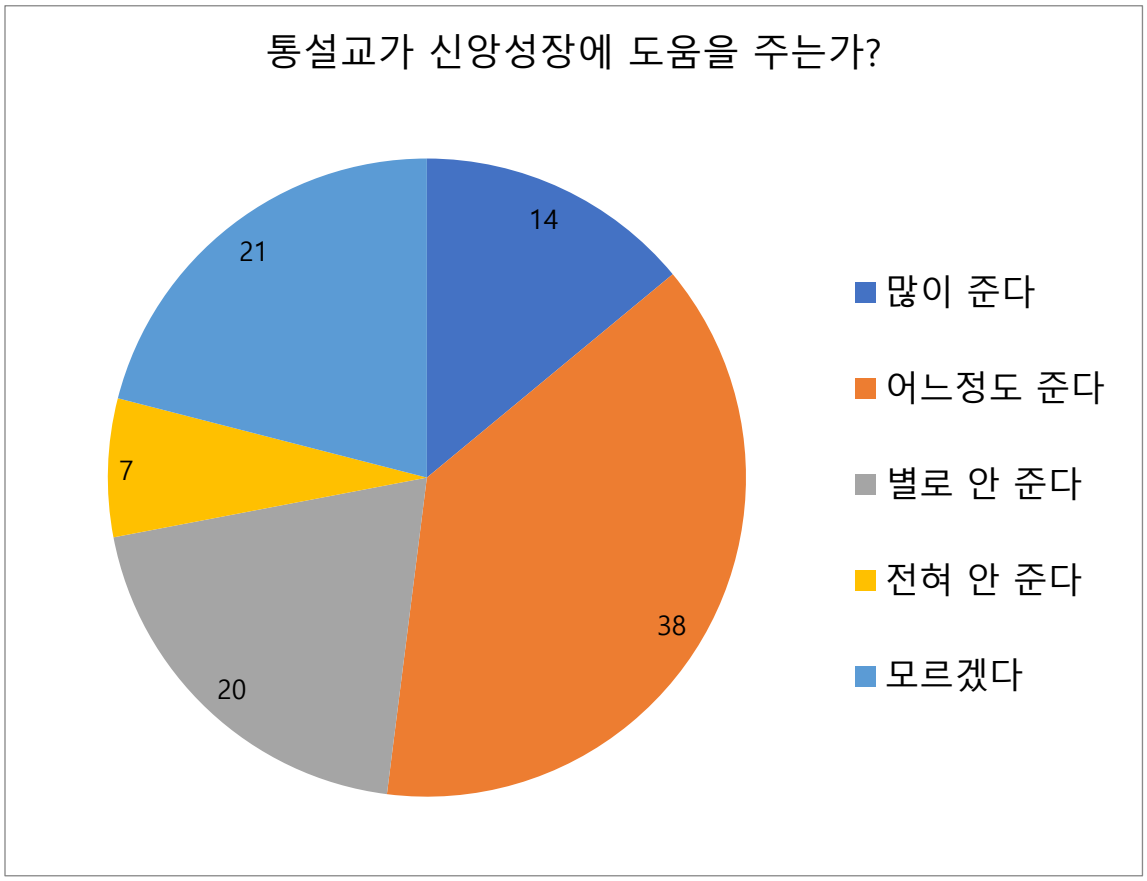
설교가 신앙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에 26%가 '많이 준다'고 응답했으며, '어느 정도 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8.5%였다. 응답자의 64.5%가 많든 적든 설교가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설교가 회중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2> 통설교와 기존설교 중 호감가는 설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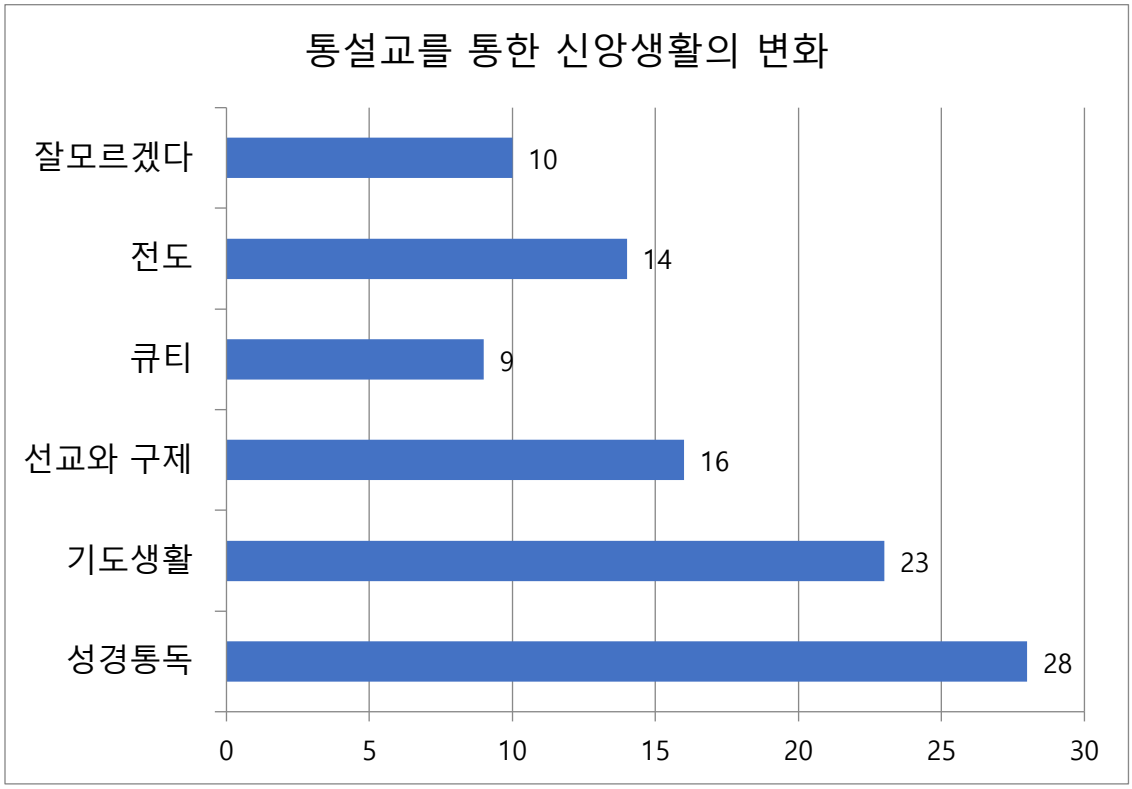
통설교와 기존 설교 중 회중이 호감가는 설교에 관한 질문에 63%가 '통설교가 좋았다'고 응답했으며, 28%가 '기존 설교가 좋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9%는 두 설교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반대로 91%는 자신이 선호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가 통설교에 호감을 드러낸 점은 회중이 기존 설교보다 통설교에 긍정적임을 보여 준다.

<표13> 통설교가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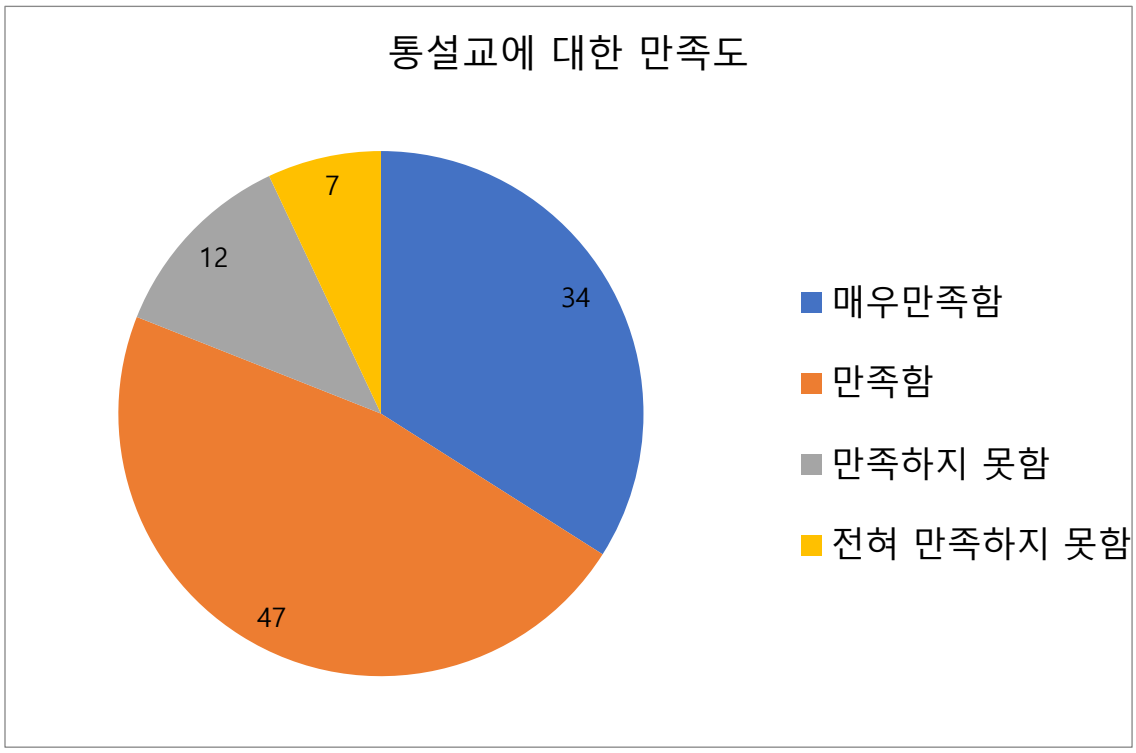
통설교가 회중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질문에 14%가 '많이 준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어느 정도 준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52%가 통설교가 전반적으로 회중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전 질문에서 설교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4.5%였던 것에 비하면, 통설교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 약 12%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에서 21%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통설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표14> 통설교를 통한 신앙의 변화



통설교를 통한 신앙생활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 '성경통독'을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28%,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23%를 차지했다. 또한 '구제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16%, '큐티 생활'을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9%, '전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1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0%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동안 신앙 성장에 관심이 없고 자라지 않았던 회중 가운데 통설교를 통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15> 통설교에 대한 만족도



통설교로 주일예배를 진행한 데 대한 회중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34%, '만족한다' 47%로 나타났다. 통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는 81%로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통설교를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실제 통설교로 주일예배를 진행한 이후 회중의 피드백이 더 많아졌다. 기존에는 설교 후 성도들을 만나면 대부분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도로 말했다. 하지만 통설교 이후에는 설교 내용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를 통해 체험했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도 함께 나누었다. 앞으로도 통설교로 계속해서 설교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회중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통설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된다.

제 Ⅵ 장

요약과 결론

연구요약

Ⅰ장 서론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설교를 통한 영적 양식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회중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억에 남지 않는 설교가 과연 영적 양식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무지와 부분에만 집중해 편협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통설교를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을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연구 범위와 제한성에 대해 설명했다.

Ⅱ장에서는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통설교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이란 무엇인지 밝혀 그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통설교의 성경적 기원과 신학적 이해의 근거를 살펴보며 목회적 차원에서 통설교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Ⅲ장에서는 통설교와 통전적 성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성장과 신앙 성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통설교를 통해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양상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모델을 설명하면서 그 둘을 합친 통전적 변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 갔다.

Ⅳ장에서는 통설교가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합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했다. 1년 동안 합성교회 주일예배에서 기존의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 대신 통설교를 한 후 성도들이 느끼는 바와 통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사해 정리했다.

Ⅴ장에서는 통설교를 진행하는 동안 성도들이 실제로 느낀 변화와 감정을 서면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했다. 통설교를 통해 신앙이 성장했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고, 통설교에 호감을 느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설교가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결론과 평가

설교는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선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거리가 가까워서'(20.1%), '모태신앙 또는 어려서부터 다녀서'(17.7%), '담임 목회자의 설교'(1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거리가 가까워서'(22.4%), '목회자의 설교'(20.8%), '예배 분위기'(16.4%) 순으로 나타났다.[81]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그 교회에 정착하고 만족하는 이유 중 거리에 따른 요인을 제외하면 담임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경에

[81] https://blog.naver.com/nashin621/2208781339790 (2022년 2월 28일 접속).

나타나는 수많은 형태의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켰다. 베드로의 설교에 오천명이 변화하는 사건[82]은 설교가 회중의 삶과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그만큼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뒤집어 생각하면 많은 현대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설교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설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벗어난 설교, 특정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설교 등 잘못된 형태의 설교가 여전히 많다. 이런 설교는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기는커녕, 교회로 향한 발걸음을 되돌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올바르지 못한 설교들이 결국 "교회에서 헌신했지만 교회에서 익힌 영성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지 못한다" [83] 과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설교를 연구한 결과, 통설교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았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전하면서, 시대적 상황과 그 속에 내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는 통설교야말로 지금 이 시대 회중에게 꼭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한다.

통성경으로 회중의 신앙을 통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필자는 회중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회의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쉽지 않지만 끝까지 수행했다.

전통적인 기존 교회에서 설교 형식을 바꾸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

[82]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행 4:4)**
[83]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강소희 역(서울: 두란노, 2018), 19**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가진다. 웬만한 확신이 없고서야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통설교를 통해서 회중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할 것으로 믿었기에 2021년 1월 첫 주부터 주일예배 설교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설교 방식으로 진행했다.

처음 통설교를 시도했을 때는 회중 가운데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통설교를 하기 전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통성경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이를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존 설교로 회귀하기를 바랐지만, 기존 설교로는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통설교로 예배를 진행했다.

통설교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처음 느낀 변화는 기존 설교보다 회중의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통설교는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 설교 후반으로 갈수록 회중의 집중도가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설교 후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기존 설교 때는 예배 후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통설교 후에는 “저도 보아스같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살겠습니다”와 같이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회중의 변화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 · 외적 · 통전적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다. 통설교로 성경 이야기를 들은 회중이 성경통독 모임을 만들어 1년 1독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며,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구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신앙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통설교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통설교 이후 성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필자가 지난 1년간 주일예배에서 통설교를 하는 동안 회중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면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은 본인 스스로 예전보다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을 통설교로 꼽는 사람이 늘었다.

누군가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을 꿈꾸는 것이 어쩌면 주제넘은 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앙은 성장해야 하며, 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필자가 1년 동안 연구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 통설교로 회중의 통전적 신앙 성장을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Ⅰ. 통설교 원고

제목 : 자식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일자 : 2021년 8월 29일

본문 : 누가복음 15장 11절 - 32절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잘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면 자식이 부모에게 달려오듯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작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더 알려진 말씀인데,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님의 비유 말씀의 초점이 아들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외형적으로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가정입니다. 좋은 부모님, 두 아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가정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정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 날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가정의 갈등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달라고 매우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몫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책임질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들인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이 작은아들의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자신 마음대로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보통 유대사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분배하는데, 이 작은아들은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아버지도 작은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는데, 큰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매우 성실한 아들입니다. 작은아들이 돌아오던 날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가 납니다. 작은아들 집나간 이후에 집에서 풍악소리 잔치소리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가?”

“집나간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주인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화가 난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고 달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을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창기들과 어울려서 탕진한 당신 아들을 위해 송아지씩이나 잡으십니까?”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맞아들여 잔치를 벌인 아버지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의 죄를 들쳐 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공로를 들어내게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형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은 동생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야 합당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버지입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는 즉시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것을 다 탕진하였을 때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 아주 궁핍하게 되어 돼지를 치면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여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면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작은아들은 그제 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을 때 정신이 들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싫어서 집을 나와 놓고, 어려움 당하자 가장 먼저 생각 나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고마움과 사랑을 모릅니다.

이 아들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부모는 자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자기 자식만 보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유대사회는 주인은 달리지 않습니다. 관습이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용서를 빌기도 전에 달려가 불쌍히 여겨 목을 껴 앉고 입을 맞춥니다.

27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은 이미 다 잊고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너무 깊고 높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여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동안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마다, 내 자신에게 작은 아들과 같은 면은 없었는지, 작은 아들의 상황에 나 자신을 놓고 회개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또

나는 큰 아들과 같은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식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들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의 위치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장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 성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내가 작은 아들에 가깝든, 큰 아들에 가깝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아버지가 되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소명은 귀향하는 자녀에게 한 마디 질문도 없이 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기쁘게 맞이하여 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정,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제자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무책임하고 제 멋대로, 큰 아들처럼 비판과 불평의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 갑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자식을 수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문 바다 해자를 보면 물 수 변에 어미 모자를 써 놓았습니다. 물이 어머니처럼 많이 모인 것이 바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수

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에 인색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탕자와 같이 용서함을 받게 되면 기쁘지만, 큰 아들처럼 다른 사람이 용서 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서 작은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 올 때,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를 빌 때, 드릴 말씀을 준비하여 연습하고 연습하였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서 철저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목 : 영적 편협함

일자 : 2021년 6월 27일

본문 : 요나 4장 1절 -11절

성서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과 생각이 앞선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정체하여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합성가족들이 신앙의 초점을 분명하게 영적인 성장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조급함입니다. 사울왕은 늘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급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행복해지려고 서둘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장애물, 영적인 편협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협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자면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편협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요나는 독특합니다. 은근히 하나님에게 항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3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요나가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니느웨는 원수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아 가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생각에 맡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나도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멸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일어나서 이것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열다섯 시간이 아니라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요나를 깨우고, 깨뜨리고 깨닫게 하여서 나아가는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가 고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래를 보내십니다. 깜깜한 고기 뱃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 이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없고 형통하면 그대로 쭉 살다가 끝날 텐 데, 질병이나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크게 성숙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고래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나오면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갔습니다. 속으로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간단하였습니다.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왕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본심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지 않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 달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한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안타까워 요나의 입을 빌려서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전혀 다른 마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중심적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박 넝쿨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주셔서 요나가 그 밑에서 시원하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방 넝쿨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날에는 벌레를 보내셔서 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 때, 요나가 또 불평을 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요나는 불평과 불만족 형의 예언자였습니다.

요나는 유아적이고, 이기적이며 늘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앞세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매사가 진행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토라져서 믿음이 시들어 버립니다.

요나는 영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와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지였습니다.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한 박 넝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니느웨에는 죄를 모르는 어린 아이가 십이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요?

자신만의 작은 세계 편협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역의 기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오라. 성장하리라. 죄 많은 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목 :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일자 : 2021년 9월 5일

본문 : 누가복음 22장 39절-46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내일 죽는다고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는다고 평소 안하던 일을 갑자기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던 일을 늘 하던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두 가지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와 다른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있다면, 오늘 본문의 최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식사 식탁에서 빵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에서 빵과 잔을 볼 때 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볼 때 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눈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성찬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도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마다 우리는 “제가 세상을 향한 성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지면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히든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성도님 대부분 자신에게 기도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중단하고 쉽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치고 실망을 해서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보면,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항상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롯은 항상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함께 하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 서로가 살아갈 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롯은 눈으로 보아서 살기 좋은 땅, 요단들을 택하여 소돔성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불모지와 같은 곳입니다.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가 전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면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믿음대로 나아가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잘 못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심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길임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두 번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40), 그리고 46절,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쉽게 넘어지고 허물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가를 보여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여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깨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니까 계속 오셔서 제자를 깨우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완전히 몰입되어 자신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도했고, 기도에 완전히 젖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충 기도하다가 잠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못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전 앞에 앉아 묵상하여 마음을 가다 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신의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성전 밖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초기에 선교사들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원주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호흡이 없는 사람”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렇게나 성전에 들어와서는 한 두 마디 외우고 “아멘”하고 일어서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지 못하는 기도, 깊이 젖어 들지 못하고 잠든 기도, 천사가 도울 시간도 주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합성가족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의 자리가 헛된 것을 내려 놓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 성도의 참된 심령

일자 : 2021년 8월 15일

본문 : 마태복음 13장 10절 - 23절

구약성경 중에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본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서 이사야 6:9-10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상황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상황이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 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강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퍅해졌으면 이사야 선지가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여도 듣지 않았을까?

사람의 마음이 강퍅해지면 누가 말씀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님 가운데는 전도하시다가 알게 된 분을 저에게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 그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은 목사인 제가 말씀을 들려도 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강퍅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듣고 보고 깨달으니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갔습니다. 너희는 복 된 눈과 귀와 심령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심령이 깨끗하여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마음은 아주 부패하고 더럽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겉으로 들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대부분 심령,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마음이 복되고 하십니다. 복 받을 심령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실 때 마음에 복을 담아주십니다. 심령이 답답하면 인생이 답답한 것이고, 심령이 우울하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심령이 거짓되면 삶이 곧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죽고자 하면 곧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온전한 심령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오늘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남쪽에는 유다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애굽, 아람, 앗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로부터 계속되는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나라와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처지를 신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와 그 왕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와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만물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지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사람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묻혀 살면 나 자신의 죄가 잘 들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감히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특별히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단에 타고 있던 숯을 집게로 집어서 입에다 대시면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도다!”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입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늘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일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그들의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그들의 귀와 눈을 완전히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완전히 망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 밭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상태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 네 가지 마음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밭은 곡식의 씨앗을 심어 양식을 거두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 밭은 영의 양식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곳입니다. 같은 씨지만 밭에 따라서 수확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밭을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과 옥토로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부분도 있고, 돌짝밭 같은 부분, 가시밭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가 되도록 하여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있는 것은 길가입니다. 파종을 하다보면 밭 가장자리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이곳은 밭은 밭이되 밭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다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단단히 굳어져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 밭입니다. 돌짝 밭은 속에 돌과 바위가 있어서 깊이 기경을 할 수 없는 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얕은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깊은 곳에 감추어진 돌과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심, 교만과 같은 은밀한 죄성을 말합니다. 이 밭은 겉으로는 흙이 덮여 있어서 좋은 땅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속으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작은 박해와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성경에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기운에 막혀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운에 눌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가시덤불 같아서 영적인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네 번째는 좋은 옥토입니다. 옥토는 깊이 기경 되어서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는 좋은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씨앗이 싹을 터서 뿌리를 박고, 영양분을 얻어 방해받는 것이 없이 잘 자라 많은 소출을 거두는 땅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옥토와 같은 마음 밭이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성장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퍅하여졌느냐?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강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강퍅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심령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깨끗하고 겸손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이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합성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 초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일자 : 2021년 8월 15일

본문 : 학개 2장 1절 - 9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빌론의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였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현실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데도 주위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느헤미아”의 주도로 허물어진 성벽이 복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은 모두 불타버렸고,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시작만 하였지, 몇 년 째 중단이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절기로는 초막절로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에는 한 주간 동안 한 해의 농사에 감사하면서 모임을 갖는데, 마지막 날에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거두어들인 것이 풍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몇 년씩 중단되어 있고, 한 해 농사도 신통치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세상의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도 보면, 학개 선지가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고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집 건수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느냐?" 반대에 부딪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은 이유를 아느냐?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라."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영적인 삶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야 세상의 삶도 형통하여지고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일이 닥치면 환경에 지배를 강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삶에 분명하게 두지 않으면 세상에 휘둘립니다. 사람이 생각이 깊은 것 같아도 일이 닥치면 중요한 일보다는 항상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 붙들리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살다 보면 그때, 그때마다 우선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모든 것이 정신이 없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입니다. 그래야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타협할 것이 있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은 우선순위, 초점을 영적인 삶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문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2성전, 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사람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는데,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얼마간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겨 놓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무가 불타고 베어져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세상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해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불씨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겨 놓은 자들도 보면, 신앙적으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국가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었습니다. 다윗 왕이 거의 모든 준비는 다 해놨고,주변 국가들도 적극적인 협조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주변의 국가에서 목재를 들여오고,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도 와서 도와 주고,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당시에 비하여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국가적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합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가운데는 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성전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3절에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축하려는 성전이 너무 보잘 것 없이 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성전을 보면 볼수록 자신들이 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적인 크기와 화려함이 문제가 아닌데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삶이 어렵고, 풀리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신앙 생활 하면서 잠시 잠깐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장, 집, 자녀, 재산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 하였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나는 무엇인가?” 실망과 회의가 들어서 나도 한 번 그렇게 살아봐? 거기 근처까지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세상에서 잘살고 성공하는 것,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잠시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해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초라한 성전, 이런 성전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건물의 외형적인 크기와 화려함으로 분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이야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담대 하라.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작고 초라하지만,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께서 너희와 오히려 함께 하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고, 초라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합성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합성가족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문헌

외국어서적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번역서적

H, J, Pieterse.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정창균 역. 경기도: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루이스 벌콥. *조직신학 하*.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7.

리더 위트락. *영적 성숙*. 유영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아담 해밀턴. *말씀을 해방시켜라*. 유성준 역. 서울: KMC, 2009.

아힘 헤르트너, 호거 에쉬만.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손성현 역. 서울: KMC, 2014.

웨인 브래들리 로빈슨. *이야기식 설교를 향한 여행*.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잭 쿠하쉑. *어떻게 성경을 적용할것인가?*. 정애숙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제이 다니엘 바우만. *성공적인 설교자를 위한 길잡이*.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8.

----------. *현대 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3

제임스 패커. *주기도문*. 김진웅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존 스토트. *현대교회와 설교*. 장성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제이 아담스. *설교연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칼 바르트. *설교학 원강*. 박근원 역. 서울: 전망사, 1981.

_____. *칼바르트의 설교학*. 정인교 역. 서울: 한들, 1999.

캠벨 몰간. *몰간 신약성경연구*. 김남준 역. 서울: 무림출판사, 1992.

케네스 리치. *영성과 목회*. 최승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토마스 G. 롱. *설교자는 증인이다*. 서병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_____.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강소희 역. 서울: 두란노, 2018.

하던 W. 로빈슨.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6.

국내서적

강하룡.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서울: 브니엘, 2019.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카페북스, 201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임성빈. *공공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서울: SFC, 2014.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웅진닷컴, 2003.

박윤선 *사도행전 주석*. 서울: 영음사, 1973.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염동성. *성경 찬송 낱말 사전*. 서울: 성광문화사, 2000.

이연길. *소그룹 성경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기독교문사, 1991.

이연길, 최훈진.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이종성.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정성구.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3.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 3*.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 교육 <개정판>*. 서울: 동연출판사, 2010.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현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논문

Darrell Guder. *"Towards Holistic Theology of Mission: World, Community, Neighbor"*. 「선교와 신학」제15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5.

제이 아담스 *"어원으로 살펴본 적용의 의미"*. 「그 말씀」,1997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91호, 2017.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 세계」 제84호, 2015

류응렬. *"설교의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 통권 204호, 2006.

남영숙, *군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 설교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1)

이정욱, *청소년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2020),

인터넷

https://blog.naver.com/nashin621/2208781339790.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ungkyu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Yesan, South Korea, March.23, 1974

Parent`s Names: Gwangsun Gong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	**Yesan High School** 101, Yesan-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 nam -do, Korea	Diploma	Feb. 12, 1992
Collegiate:	**Mokwon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B.A	Feb. 25, 1999
Graduate:	**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ology**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TH.M	Feb. 12, 200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ungkyu Choi

Name typed

March 02. 2022